

佛學第三十一號

그럼으로 우리半島의信仰界에適當한것은禪宗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다지利益을만히주지못한것인즉 半島人의第一조야하는 理想的의信仰對象을堅持하기어려웠다 그럼으로多年參究하는禪客들이念佛을勵하는것이다 그들은 勇氣를내어서參究하지만恒常성실한노김이잇습으로 理想的의對象을그래도가지려하였다.

參禪이라하는것은 다른것이아니오 現今의意識哲學이니 이方式에依하여 엇은信仰인즉 죽기前에는이저바일수잇습으로 그다지無識한僧侶가아니고는 退俗하였드라도 그의信仰은이저바리지어아니하는것이다 그럼으로 元曉는非僧非俗으로다니면서 同類의계蔑視를當함에도不顧하고 그의意識哲學的見識을 信仰上에다가發表하였나니 所作의야담들이 보거나말거나 自己가하고심은것이닛가 單은것이다.

그럼으로이와가은 半島的天才를發達시키고 利用하자면 相當한機關이잇서서 以上과가은信仰을 가진者들의 便宜를圖한다면 半島의精神生活은新方面을開拓하리라잇는다 이러한機關을組織하라면

相當히研究할것이니 이方面에有意者가잇다면 相當히研究하기를바란다 (完)

元旦法語 (二)

新律機分 霞光轉曉 天色欲曙 暈冷 晨候似冬 惡寒 蓋鴻蒙之未曉 乃磨滅之寒未退 時須頓頭 已屬東君 勿此知勞 共得勝歲 剛有一人 不在斯際 天地無由蓋載 寒暑豈得推遷 日月莫謂照臨 陰陽卒難變易 若救此人受歲 終是不甘 時節到來 又爭諱得 且道 受歲人與不受歲人 兩家相見 如何作賀 良久曰 寒隨一夜去 春逐五更來

(仰山簡禪師)

昨日去年去 今日今年來 去年去不去 今年來不來 編

野蓋尺雷 大地亡樓埃 無名無字人 舉目轉徘徊

(保寧勇禪師)

佛學界說

支那 李 灼 翊

佛敎는義緒가繁富하고 旨趣가渾含하여 그界說에잠시못하면 鑽研할道理가엄게되는지라 茲에簡略히十條를列擧하여 概要를示하노니 指를因하여 月을見하게된다하면 이것이智者의계바라는바이로다.

一、佛學은一元도아니며 二元도아니며 多元도아니니 一元이아니함은 無住로本을상는故로攝하지못하는것이엄는사담이다。二元도아니함은 오즉眞實이오뜻이엄서서 無明이엄는사담이다。多元도아니함은 心·佛·衆生이 差別이엄는사담이다。二、佛學은唯心도아니며 唯佛도아니니。唯心이아니함은 一物도바리지어아니하며 一塵도바리지어아니하는사담이다。唯佛도아니함은 一心에바리지어아니하는사담이며 一法도세우지안는사담이다。

三、佛學은佛分도아니며 衆生分도아니니。佛分이아니함은 衆生이各各覺心을自具하여 各各도로

自性을覺하는사담이다。衆生分도아니함은 單獨히諸佛의覺으로써衆生을覺케한後에라사 衆生이能히自覺하는사담이다。

四、佛學은自作도아니며 他作도아니며 共作도아니며 亦無因作도아니니 自作이아니함은 諸佛覺을依치아니하고 能히自覺하는사담이다。他作이아니함은 諸佛覺이다하야사 져우自覺을잇습으며 自覺의外에는 畢竟에無得인사담이다。共作도아니함은 諸佛覺과自覺이 各各不相到한사담이다。無因作도아니함은 自覺곳입스면 諸佛覺도能히되부러緣이되야 覺하게하지못하는사담이다。

五、佛學은世間도아니며 出世間도아니니。世間이아니함은 事가眞實이라 俗을可히得할수잇는사담이며 出世間도아니함은 塵을離하고는잇는사담이며 衆生이모다如한사담이며 一切世法이無非佛法인사담이다。

……佛學第三十一號……

六、佛學은 消極도 아니며 積極도 아니며。消極이 아니라는 無爲에 住하지 아니하여 衆生을 隨順하는 事蹟이며 積極도 아니라는 證自證分은 究竟에 無得이 事蹟이다。

七、佛學은 因襲도 아니며 創造도 아니며 因襲이 아니라는 緣生이 住가 업서서 前際가 업는 事蹟이다 創造도 아니라는 本有가 生치 아니하여 後際가 업는 事蹟이다。

八、佛學은 獨斷도 아니며 懷疑도 아니며。獨斷이 아니라는 法이 緣을 應하여 生하고 自性을 離한 事蹟이다 懷疑가 아니라는 內로 自覺을 證하면 本如를 得하는 事蹟이다。

九、佛學은 모든 邊量을 離한 事蹟이다。生도 아니며 本有한 事蹟이다。滅도 아니며 本來不生인 事蹟이다。常도 아니며 住가 업는 事蹟이다。斷도 아니며 恒常相應하는 事蹟이다。一도 아니며 緣으로 生하는 事蹟이다。異도 아니며 一如한 事蹟이다。來도 아니며 自在한 事蹟이다。出도 아니며 自得인 事蹟이다。增益도 아니며 覺體가 本圓한 事蹟이다。損減도 아니며 本來에 듯이 업는 事蹟이다。니와 칸等의 一切의 邊量을 離

하였다。

十、佛學은 惟一한 中道觀이니。自性善提心이 淸淨圓明하여 一切를 遍攝하고 外가 無有한 事蹟이다。

元旦法語 (三)

三十六句之開始 七十二候之起元 萬邦 運和氣之時 東帝布生成之令 直得天垂瑞 彩 地涌禎祥 微微細雨洗寒空 淡淡春光 籠野色 可謂應時納祐 慶無不宜 盡大地 人皆添一歲 且道 那一人年多少 良久 曰 千歲老兒顏如玉 萬年童子髻如綠

(護國昌興師)

古今天地 古今日月 古今人倫 古今山河 釋迦彌勒 坐籌帷幄 耶舍拭眼 罷戰沙場 且道 功成名遂一句 作麼生道 萬人退仰處 紅日到中天

(羅庵禪師)

吾人何故信佛教乎 何爲學佛乎

臺灣獅山金剛寺 釋 善 雄

世上에서 佛敎에 對하여 將信未信하는 者들은 善友들의 「佛을 學하라 佛敎을 信하라」하는 勸告를 受나면 卽즉 이러한 問題를 起起어 낸다 吾人이 무스런 故로 佛敎을 信할까? 엇지하여 佛을 學할까? 할 것으로 이러케 解答하노라。

一、佛敎은 人心의 通性임으로 우리는 佛敎을 信해야 한다

(1)、自覺·覺他·覺行圓滿한 것이 佛이니 사람은 모든 心이 있고 心에는 모든 覺이 있고 覺하면 卽是 佛이오 佛은 天의 通性이라 사람은 모든 覺하기를 願하며 아울러 사람마다 가지게 하여 覺性이 圓滿하여 平等하기를 願함으로 우리들은 佛을 信해야 한다。

(2)、無碍自在한 것이 佛이니 사람은 모든 自由를 願함으로 우리들은 佛을 信해야 한다

佛學第三十一號……

우리들은 佛을 信해야 한다

(4)、智慧燈으로 一切世界의 愚闇을 破하는 것이 佛이니 사람은 모든 佛野關累을 除하고 眞理를 發明하여 文明進化되기를 願함으로 우리들은 佛敎을 信해야 한다

(5)、與人爲善하며 無上한 目的을 세워서 한가지 究竟에 이르기를 期하는 것이 佛이니 사람은 모든 最眞最美 最善 最勝한 究竟地에 達하기를 願함으로 우리들은 佛敎을 信해야 한다

二、佛敎을 信하는 것은 眞實이 悟信이며 正信이오 迷信이나 邪信이 아니므로 우리들은 佛敎을 信해야 한다

(1)、아모 意志와 了解를 信하는 것이 迷信이며 邪信이오 崇拜와 歸依가 있어서 信하는 것은 悟信이며 正信이다

(2)、佛이 엇더한 人格인 줄 알지 못하고 바람부는 대